

2023 새해 이렇게

최경식 남원시장

# 드론·항공·곤충산업 확충... 소외 없는 복지 실현



## 사상 첫 본 예산 1조원 시대...드론 메카 등 신성장산업 육성 춘향테마파크 리뉴얼·통합하천사업·음식특화거리 조성 등

“더 융성하는 남원 토대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새해 인터뷰에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실천할 것이며,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도 남원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시장은 또 “지난해 정부의 긴급재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예산 3408억원을 확보, 사상 첫 본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그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더 융성하는 남원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더 힘차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도약하는 미래 남원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일찌감치 미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포함시킨 드론·UAM 산업과 하늘길을 여는 항공사업, 미래 식량자원인 곤충산업을 남원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끌 미래 먹거리

리로 선정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유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항공 안전 기술원 분원 유치, 드론 실증도시 구축, UAM·드론 실증단지 및 홍보전시관 조성, 농생명바이오산업인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남원의 미래 먹거리를 든든히 확충할 방침이다.

민선8기 시정추진의 중요한 화두로 앞세우고 있는 ‘문화’를 통해 올해 남원만의 특색을 가진 역사문화예술자원을 재조정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으로 ‘머무르고 싶은 남원’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춘향테마파크 리뉴얼, 숲길과 도자를 담아낸 뮤지엄 신축 등 ‘예술과 자연을 컬렉션’으로 한 ‘함파우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남원문화예술의 핵심 아젠다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요천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통해

요천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요천을 상시 축제화해 축제와 빛의 향연이 가득한 공간, 품격 있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남원’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음식특화거리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숙박거리를 조성해 남원시만의 특색을 가진 관광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도 농업이 강한 남원, 농민이 잘 사는 남원 만들기에 전념한다.

그 실천 방안으로 남원 프리미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ONE-푸드 전략사업화로 영농소득을 극대화하고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과 함께 청년들에게는 시설원에 스마트 팜을 패키지로 지원, 미래 남원농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 100억원 조성은 물론 농산물 수출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확대,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환경과 교육 환경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오는 2026년까지 지리산권 내 남원형 공

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남원의료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립의과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물론 남원의 미래를 밝힐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제감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영유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키즈랜드 조성 및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완료, 한 단계 높아진 양육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이룬 민선 8기 6개월의 성과를 통해 ‘행복한 남원’의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 있었다”면서 “그 희망을 추동력 삼아 새해에도 오직 남원의 발전만 생각하며 더 융성하는 남원의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시민 여러분과 더 함께 소통하고, 더 행동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상공업계 권익 대변·기업 경영난 타개 앞장”



지난 6일 정읍 아크로 웨딩홀 연회장서 열린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최중필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 서남상공회의소 신년회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중필) 계묘년 신년 인사회가 지난 6일 정읍 아크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위, 김중훈 경제부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황해속 정읍시부시장, 이경신 고창군부시장 등 주요 기관장과 관할지역인 정읍·김제·고창·부안 상공회의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상공회의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태인산업(대표

이사 김선옥), 신태인농협(조합장 김성주), ㈜디에스판넬(사장 이석), 신흥에너지(대표 신경식)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또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 SK넥슬리스(본부장 전상현), 이원컴포텍(대표 홍진영), ㈜유지하이텍(대표 송상우)이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1948년 지역 상공인들을 주축으로 임의단체로 창립, 공법인 인가(1953년)를 받고 상공부로부터 정읍·김제·고창·부안 관할구역확장 승인(1980년)을 받았으며 2016년 명칭을 변경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193가구 난방비 등 지원

남원시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종합대책 마련해 추진 중이다.

남원시는 질병 또는 장애를 겪는 이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사고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관리하고자 동절기 종합대책을 오는 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휴·폐업, 실직·일용근로자, 보험료 체납, 건강보험료, 통신회 체납 등의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과 읍면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통장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나선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겨울철 주거 및 난방 취약 193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했다.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주거 불안정 96가구, 목재 및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난방위기 97가구가 대상으로 생활상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난방과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에게 8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진’을 통해 남원시민의 복지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난방비, 연탄, 이불 지원 등 저소득 주민이 동절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발생 시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태영건설, 익산 부송 데시앙 745가구 분양



조감도

태영건설이 익산시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부송 데시앙’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부송 데시앙은 익산시 부송4지구 B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총 7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501가구 ▲84㎡B 151가구 ▲84㎡C 93가구다.

데시앙은 KTX 호남선과 수서발 SRT가 지나가는 익산역과 호남고속도로 익산C까지 차로 10분 내 도달할 수 있으며, 익산국가혁신산업단지,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주요 업무시설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으로는 마트, 영화관, 병원을 비롯해 시민공원, 중앙체육공원, 팔봉공원 등 다양한 편

의시설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공동초, 영등중, 어양중은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이고, 도서관과 학원가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됐다. 3.3㎡당 확장비를 포함한 958만~1069만원이며, 3억원 초중반대까지 형성돼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해당·기타지역, 18일 2순위 청약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며, 3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부송동에 위치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

/익산=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자산규모 1조3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